

무사고 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Ⅲ)

金 元 夏
(교통신문·취재부장)

지난 1989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무려 255,787건이나 된다. 이같은 사고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고는 11,506건으로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603명이었으며, 부상을 입은 사람은 325,89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도로는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와 같이 되어버렸다.

또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5,1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39명이 사망했는데 치사율에 있어서는 일반도로의 4배인 16.3%나 되었다.

전국의 1,558.9km의 고속도로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고속도로 1km당 1년간 3.3건씩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방어운전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 방어운전요령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18. 차는 급히 정지하지 않는다. 스피드에 지배되지 말 것

방어운전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운전자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스피드에 매력을 느껴 스피드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주행하고 있는 차는 정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곧바로 정지할 수가 없는 것이 자동차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스피드를 조절해야 한다.

19.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운전자이다. 브레이크를 과신하지 말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는 정지한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운전자는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하는 것은 차륜의 회전이다. 차륜의 회전이 정지했다 하더라도 차체는 간단히 정지하지 않는다.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를 과신하는 것은 사고의 근원이 된다.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브레이크 장치가 아니고 운전자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언제나 안전하고 확실한 정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 Shift down은 빨리 조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지나 감속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주행 스피드가 높을 때일수록 정지하기 전에 우선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속을 위하여는 엔진 브레이크를 유효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적절한 Shift down이 필요한 것이다.

Shift up의 경우와는 반대로 빨리 Shift down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감속에서 가속으로 이행하는 것도 수월하게 이를 수 있게 된다.

21. 브레이크는 서서히 밟는다. 급제동하는 버릇을 갖지 말라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늦는 사람 또는

일부러 늦게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사람이 의외에도 많은 것 같다. 그러한 습관은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언제나 서서히 밟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유 있는 정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제동 정지와 감속, 그리고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인 것이다.

22. 언제나 바른 조작 기술의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방어운전은 위험사태의 신속한 예견이라는 뛰어난 판단능력과 인지, 그리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바른 운전조작이라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조작의 기술은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나쁜 버릇이 붙게 되며 자기 나름대로 되기 쉬워 마침내 자기 솜씨를 과신하게 되므로 항상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바른 조작 기술의 향상을 꾀함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